BARINGS

사모 대출

다이렉트 렌딩: 왜 글로벌인가, 왜 지금인가?

INSIGHTS

특히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인컴 창출과 자본 보존, 그리고 분산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글로벌 다이렉트 렌딩이 매력적인 투자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일러 게이틀리
북미 사모 대출 대표

올라 월쉬
유럽 사모 대출 매니징 디렉터

져스틴 홀리
아시아 태평양 사모 대출 대표

본 자료는 최근 팟캐스트 내용에 기반해 제작됐습니다.

진화하는 시장

지난 10년 이상 직접 대출(Direct Lending) 시장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투자자 관심을 끌고 크게 주목받아왔습니다. 가장 크고 성숙한 시장인 북미 시장은 2010~2024년 사이 시장 규모가 3배 성장했습니다. 현재 규모는 약 1.5조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거의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직접 대출 시장은 북미의 절반 정도인 5천억~1조 달러 사이로 추정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진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현재 약 280억 달러 규모로 운용자산(AUM) 기준 규모로는 가장 작지만, 성장 잠재력은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1]

직접 대출 시장은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직접 대출 시장은 투자 저변을 확대하며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사나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그 중심에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고액자산가 투자도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 사모 대출 시장 성장의 한 축에는 사모 대출 자산 투자기구 중 하나인 (만기없이 지속 운용되는) 퍼페추얼(perpetual)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ies)의 부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장분석 기관 LSEG에 따르면, 2024년 BDC는 운용자산(AUM) 규모가 3,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 중 약 절반은 상장 BDC(북미에 약 50여개)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비상장 BD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

글로벌 다이렉트 렌딩 시장 개요

북미	유럽	선진 APAC
1.5–1.7조 달러 클럽 딜 최근 12개월(LTM) 수익률 10.5% 250 bps*	5,000억–1조 달러 단독 대출/클럽 딜 최근 12개월(LTM) 수익률 9.5% 250–300 bps*	280억 달러 단독 대출/클럽 딜 최근 12개월(LTM) 수익률 11% 250–400 bps*

출처: Barings, Credit Suisse, Preqin. 2025년 3월 기준. *BSL 대비 평균 프리미엄.
수익률 기준 통화: 북미 및 선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 달러 기준, 유럽은 유로화 기준.

꺾이지 않는 성장세

투자자의 직접 대출 자산 배분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5~10년 전만 해도 사모 대출 투자는 핵심(core) 전략이라기 보다는 보조(satellite) 전략으로 여겨졌으며,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이 북미 시장에 주로 투자했고, 사모 대출에 대한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약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 1% 역시 대부분 전통적인 미들 마켓 직접 대출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기관투자자(LP)들이 사모 대출 자산 배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 전략을 통해 여러 지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북미나 유럽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상대가치를 포착하는 글로벌 전략이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 출처: Preqin. 2025년 3월 기준.
2. 출처: LSEG LPC. 2024년 12월 기준.

실제로 특히 LP들이 기업 전반의 투자 현황을 점검할 때, 글로벌 접근법은 여러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 기회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사모 대출 운용사는 보다 선별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경쟁 환경이 달라지므로, 글로벌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운용사는 상대 가치가 떨어지는 시점에도 특정 지역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없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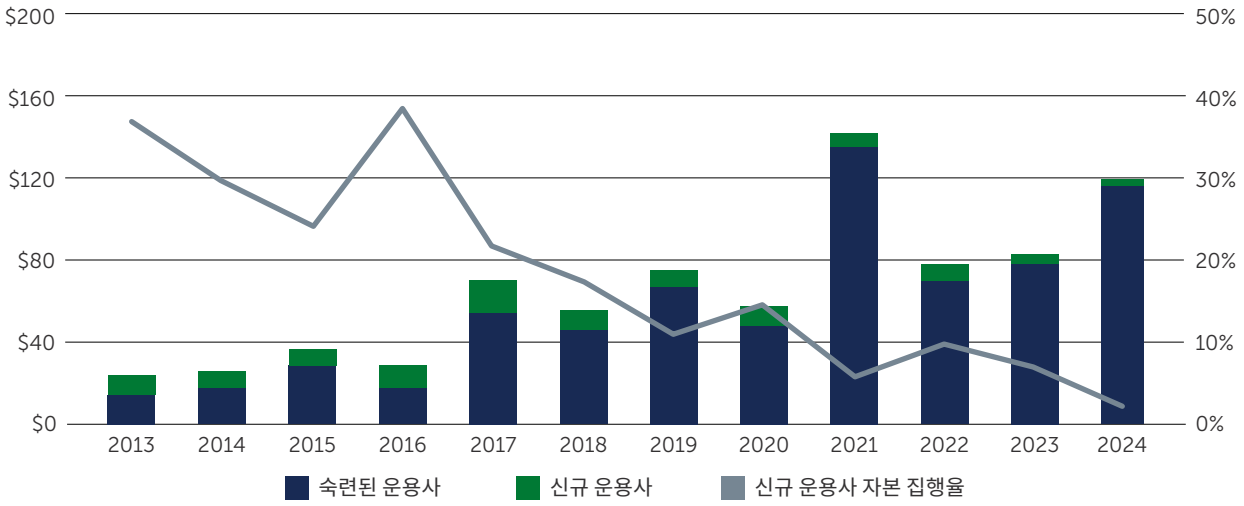
하지만 글로벌 전략은 복잡성을 수반하므로, 투자자는 다양한 지역에 현지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운용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미: 가장 크고 성숙한 시장

북미 직접 대출 시장은 규모가 가장 크고 성숙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입니다. 지난 5년 간 약 500개의 신규 운용사가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 흐름은 점점 더 소수의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운용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표 1). **일례로, 5년 전에는 상위 20개 운용사가 전체 시장 자본의 35%를 집행했지만, 2024년에는 상위 20개 사모 대출 운용사가 전체 시장 자본의 65% 이상을 집행했습니다.**[3] 즉, 치열해진 경쟁 속에 특히 전통적인 또는 진정한 미들 마켓에 투자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신규 진입 운용사의 자본 집행율은 단 2%에 그치는 등, 관련 데이터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4]

구조적으로는, 유럽 또는 선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비 '클럽 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클럽 딜은 복수의 대출 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해 하나의 대출 거래를 수행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러한 클럽 딜 구조는 특히 어퍼 미들마켓(Upper Middle Market)에서 두드러지며, 거래 규모가 매우 크고 참여 운용사의 수가 25곳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협상이나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비공개 협상 또는 유연한 재무 조건 조정 등 직접 대출의 전통적인 장점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수의 대출 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거래에서도, 운용사가 리드(lead) 또는 공동 리드(co-lead) 운용사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도표 1: 운용사 유형별 직접대출 자본 집행 규모 (십억 달러)



출처: Pitchbook. 2024년 12월 31일 기준.

3. 출처: Preqin. 2024년 9월 기준.
4. 출처: Pitchbook. 2024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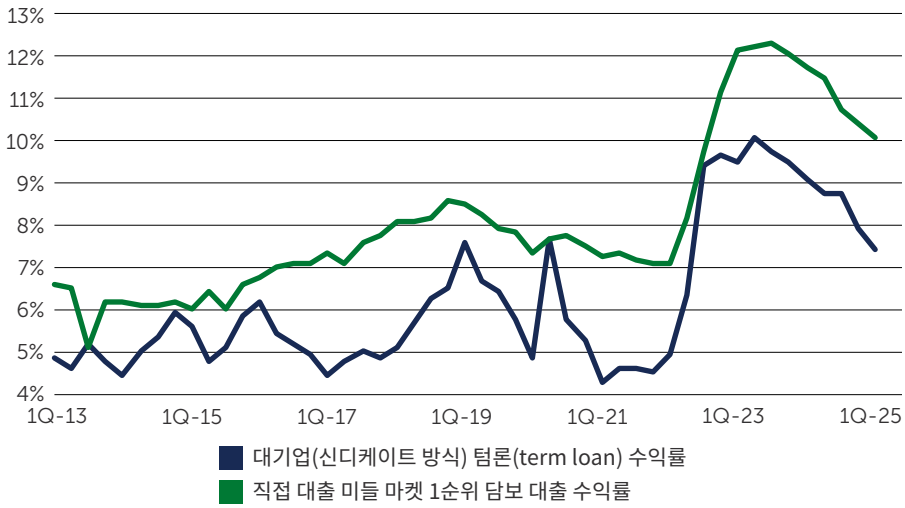
중요합니다. 이는 대출 접근 방식, 문서화, 구조적 보호장치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전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미들 마켓(Core Middle Market)

북미 사모 대출의 딜 조건과 가격 구조는 운용사가 거래하는 세부 시장 영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M&A 활동 부진으로 거래 흐름이 다소 제한적인 편이었습니다. 특히 신규 플랫폼 딜에서는 수요/공급 불균형이 뚜렷해 전체 가격을 타이트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퍼 미들 마켓에서는 큰 거래 규모, 경쟁 심화로 인해 마진 압축(margin compression)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보유중이던 운용사들은 차별화 기회 발굴, 오프 마켓(off-market) 소싱 또는 추가 투자(add-on transaction)를 통한 자금 집행 여력을 갖추고 있어, 딜 흐름 둔화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코어 미들마켓에서의 전통적인 선순위 담보 대출 조건은 여전히 비교적 우호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 스프레드 압축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기준 12개월 선순위 대출의 총 수익률(All-in Yield)은 약 10.5%로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5] 또한, 미들 마켓 대출이 전통적으로 신디케이트론(BSL)보다 높은 스프레드를 제공해온 점도 여전한 투자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어링 북미 다이렉트 렌딩 전략 기준, 과거 프리미엄은 200~400 bps 선이었으며, 최근 5년 평균은 250 bps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6]

도표 2: 북미: 과거 비유동성 프리미엄 vs. BSL 시장 비교



출처: LSEG LPC. 2025년 3월 31일 기준.

5. 출처: Barings. 2025년 3월 31일 기준.
6. 출처: Barings, Credit Suisse. 2025년 3월 31일 기준.

2024년

상위 20개 운용사가

북미 지역 자본의

65% 이상

집행

2024년

상위 5개 운용사가

유럽 지역 전체 거래의

약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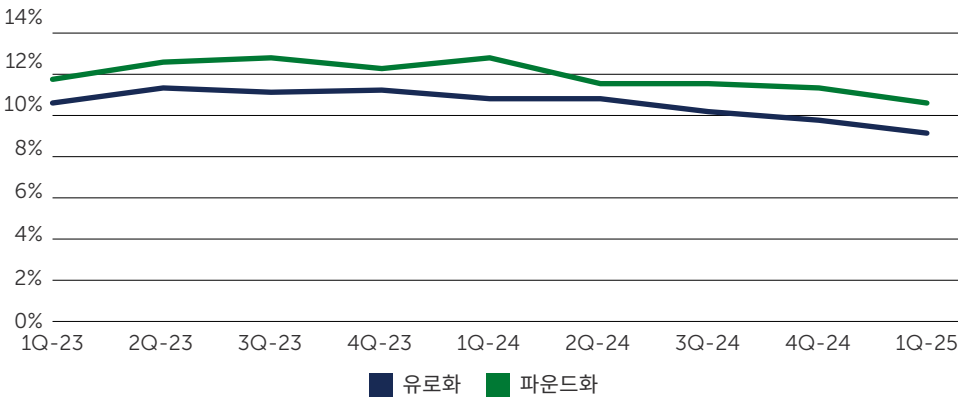
집행

유럽: 성장 및 다각화

유럽의 직접 대출 시장은 지난 10년 간 상당히 발전했으며, 북미 시장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고유한 역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럽 사모 대출 시장이 성숙도 측면에서 미국에 비해 5~10년 뒤처져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특히 코로나 이후 그 격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와 유사하게, 유럽 사모 대출 시장도 주로 은행 대출의 위축 속에 성장했습니다. 레버리지 대출 가이드라인과 기타 규제로 은행 대출이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은행 지원이 어려워진 거래에 대해 비은행 대출 기관이 은행을 대신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 5년 사이 신규 대출 기관의 유입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북미 시장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큰 규모의 시장 지배력을 갖춘 상위 운용사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2024년 유럽에서 완료된 전체 거래의 약 절반 가량이 상위 5개 운용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7]

도표 3: 유럽 사모 대출 수익률, 고금리 환경 속 견조세



출처: KBRA DLD. 2025년 3월 31일 기준.

가격 및 총 수익률 관점에서 최근 유럽 스프레드는 축소됐으며, 3월 기준 12개월 스프레드는 약 620 bps 수준을 유지했습니다.[8] 그러나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됨에 따라 신규 투자 수익률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3월 기준 12개월 수익률이 약 9.5%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및 2023년 수익률은 각각 7% 및 10.9% 였습니다.[9] 또한 시장은 여전히 BSL 대비 250~300 bps 수준의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0] 이러한 흐름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클수록 프라이빗 에쿼티(PE) 스폰서들이 회복력, 안정성, 그리고 실행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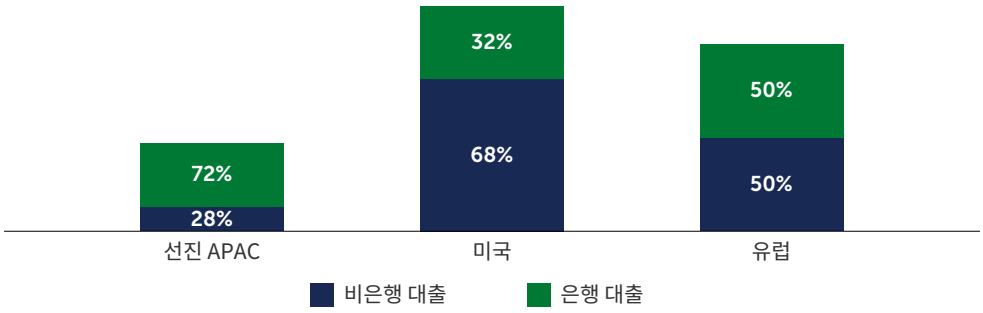
7. 출처: Houlihan Lokey. 2024년 12월 기준.
8. 출처: Barings. 2025년 3월 기준.
9. 출처: Barings. 2025년 3월 기준.
10. 출처: Barings, Credit Suisse. 2025년 3월 31일 기준.

유럽은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복잡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북미 시장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영국이 대규모 직접 대출을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시장 대출 발행 또는 거래량의 70~80%가 영국에서 이루어졌고,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으며, 최근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에서도 직접 대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국가 및 관할권은 고유한 법률 및 세무 체계를 지니고 있어, 현지 언어로 전문적인 금융·법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전문팀의 확보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선진 아시아 태평양: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아시아 태평양 직접 대출 시장은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북미, 유럽 대비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아태 지역 미들 마켓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APAC 기반 기업의 자금 수요를 가속화하고 혁신적이고 유연하며 효율적인 금융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미들 마켓 자금 조달의 전통적인 공급원이었던 은행은 북미,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 대출 기관 증가로 경쟁이 심화됐지만, 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으며, 공급 확대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시장 형성, 그리고 훨씬 더 깊어진 투자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은행의 대출 축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자금 조달분의 약 70%를 여전히 은행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성숙에 따라 앞으로도 직접 대출 시장이 상당히 성장할 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표 4).

도표 4: 지역별 은행 대출 vs. 비은행 대출



출처: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2024년 9월 30일 기준. 은행 대출은 사모 비금융 총 대출에서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선진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은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한국, 일본 포함.

최근 몇 년간 여러 글로벌 사모펀드(PE) 운용사들이 아태(APAC) 시장에 진출해 지역 특화 펀드를 조성해 온 점은, 아태 지역 직접 대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들 운용사 상당수는 북미 및 유럽의 직접 대출 시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은행 대출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 빠른 실행력, 실행 추진력 등의 장점을 아태 지역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결과, 아태 지역에서 조성된 사모펀드 전용 자본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현재 투자 대기 자금(dry powder)은 6,5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11] 이러한 추세는 사모 대출 시장 성장을 겨냥한 신규 펀드들이 지속적으로 조성되면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아태 지역의 대출 펀드가 주로 스페셜 시추에이션(special situations)이나 오퍼튜니스틱(opportunistic) 대출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전통적인 시니어 직접 대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운용사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증가하는 자금 수요로 인한 시장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및 지역 기반 대출 펀드 모두의 자본 확대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1. 출처: Preqin, Bain & Company. Asia Pacific Private Equity Report 2024. 2023년 12월 기준.

선진 vs. 이머징 시장

아태 지역은 지리적 다양성이 있으며, 국가별로 투자 매력도와 법적 제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호주 및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을 중심으로 한 선진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유망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규제 환경 및 파산 관련 법률이 다른 선진 시장과 유사합니다.** 국가 신용등급 또한 미국, 유럽에 상응하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 한국, 일본 역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이머징 시장은 고유한 사법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투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들 마켓 기업은 선진 아태 지역에서 업계 선도 기업인 경우가 많으며, 시장 점유율에서도 우위를 점한 경우가 많습니다.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는 일반적으로 1,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이상 수준으로, 미국 및 유럽 미들 마켓 기업과 재무 구조가 유사한 편입니다. 거래 레버리지 수준도 미국, 유럽 시장과 대체로 일치하며, 일부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격 변동성 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비은행 대출 기관들이 아태 시장에서 점차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시장 대비 딜 참여자 수는 여전히 적은 편입니다. 또한, 문서화 측면에서도 보수적인 편이며, 특히 미들 마켓 거래에서는 대출을 받은 기업이 일정한 재무 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유지형 계약조건(maintenance covenants)과 기타 구조적인 보호 장치들이 대부분 거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전략의 기대 효과:

확대된 투자 기회에 대한 접근

더욱 정교한 선별 투자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

지역별 리스크 헤지 효과

… 그리고 지역 간 상대 가치 변동시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유연성

왜 글로벌인가?

북미, 유럽, 그리고 선진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세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을 고려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경제, 금리, 기업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4년의 투자 기간 동안 직접 대출 시장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미, 유럽, 선진 아태 지역 전역에 걸친 분산 투자를 통해 운용사는 시점별로 가장 매력적인 상대 가치를 제공하는 지역에 유연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별 수요, 공급 요인이 달라 거래 가격 및 구조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거래 흐름이 둔화되는 상황이라면, 운용사는 보다 시장 환경이 유리한 다른 지역으로 전략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전략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팬데믹 초기 대부분의 시장이 급격히 둔화했지만, 북미 시장이 가장 먼저 직접 대출 거래 규모 측면에서 회복세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왜곡은 상당한 투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유럽 시장도 회복세를 보였으며, 왜곡 정도는 북미 대비 덜하긴 했지만 기간이 지연되면서, 상대 가치 변화 시점에 따라 두 지역 간 투자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배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개별 지역 리스크를 자연스럽게 헤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투자 유연성이 특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관세 정책은 현재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이며, 무역 흐름과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여러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미래의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기대를 나타내는 포워드 커브(forward curve, 선도 금리 곡선)가 관련 지표로 활용되고는 있으나, 실제 금리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전략을 통해 지역 간 투자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운용사들이 시장에서 맞딱뜨리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회복력 및 향후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유연한 금융 솔루션

이처럼 유연한 금융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운용사는 대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투자자도 다양한 지역 및 시장 투자 기회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스폰서(PE 운용사)들이 소수의 운용사와 거래를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 가치 창출 및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 조달 수요가 변화하더라도 대출 기업의 장기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이는 여러 통화와 관할권에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대출기관과 협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북미에 기반을 둔 스폰서가 런던, 파리 또는 아태 지역에서 신규 플랫폼의 인수를 추진할 경우, 달러, 파운드, 유로 등 다양한 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대한 깊은 법률적 지식을 갖춘 기존 운용사와 협력하면 상당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대출기관이 스폰서의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차별화되고 회복력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에 유리합니다.

베어링 글로벌 다이렉트 렌딩 플랫폼:

여러 지역에서 검증된 경험 및 액티브 운용 역량

북미

840건 이상
플랫폼 투자

353억 달러
투자 집행

0.03%
설정 이후
시니어 론 손실율[1]

2012년
시니어 론 전략 개시

유럽

325건 이상
플랫폼 투자

232억 유로
투자 집행

0.01% 이하
설정 이후
시니어 론 손실율[1]

2013년
시니어 론 전략 개시

선진 APAC

110건 이상
플랫폼 투자

42억 달러
투자 집행

0.00%
설정 이후
시니어 론 제로 손실율[1]

2011년
시니어 론 전략 개시

2 bps
글로벌 시니어 대출 플랫폼
연환산 손실율

30년 이상
미들 마켓 기업 투자 실적

500억 달러 이상
글로벌 투자 약정액

350개 이상 기업
"오프마켓(off-market)" 소싱을 통해
구성된 글로벌 포트폴리오

30개 이상 포트폴리오
컴밍글드 펀드(commingled funds),
CLO, 영구 자본(permanent capi-
tal), SMA 포함 독립 포트폴리오

2025년 3월 31일 기준.
1. 손실율은 전략 개시 이후 실현된 투자에서 발생한 총 손실을 총 투자금 대비 비율로 계산한 후, 전략 개시 이후 경과 연수로 나누어 산출. 이자, 수수료, 원금 회수액 및 관련 비용 포함.

과거 실적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명시된 목표가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은 기관 투자자 및 보험사, 판매사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4,426억 달러 이상의 수탁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험사 매스뮤추얼(MassMutual)의 자회사인 베어링자산운용은 채권, 실물 자산, 캐피털 솔루션 등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및 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 공·사모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중요정보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사례는 단순 참고용이며, 결코 미래 투자 성과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와 투자에서 발생하는 향후 소득 가치는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사례는 단순 참고용이며, 결코 미래 투자 성과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의 구성, 규모 및 위험은 본 자료에서 제시된 사례와 현저히 다를 수 있으며, 투자의 향후 수익 혹은 손실 여부에 대해 보증 및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할 계획이나(UH형 제외)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채권 투자시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용도는 판매사 사내한 또는 가입고객 열람용으로 제한함.

전문 투자자 및 판매사 배포용. 본 자료는 개인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베어링자산운용(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베어링자산운용이 제공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투자권유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의 어떤 내용도 투자 및 세금, 법적 자문이나 권유 행위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현재 의견 및 예상, 예측에 근거한 예측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예측 정보를 갱신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결과는 예측 자료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여기에 인용된 제 3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발행일을 기준으로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떠한 투자 결정도 본 자료의 정보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베어링은 전 세계 베어링 계열사의 자산운용 및 관련 사업의 상표명입니다. BARINGS LLC, BARINGS SECURITIES LLC, BARINGS (U.K.) LIMITED, BARINGS GLOBAL ADVISERS LIMITED, BARINGS AUSTRALIA PTY LTD, BARINGS JAPAN LIMITED, BARINGS REAL ESTATE ADVISERS EUROPE FINANCE LLP, BARING ASSET MANAGEMENT LIMITED, BAR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 BARING FUND MANAGERS LIMITED, BARING INTERNATIONAL FUND MANAGERS (IRELAND) LIMITED,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BARING SICE (TAIWAN) LIMITED, BARING ASSET MANAGEMENT SWITZERLAND SARL, 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 등은 BARINGS LLC의 금융서비스 계열사로(단독으로는 “계열사”) “베어링” 으로 통칭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독자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또는 구체적인 니즈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투자자문, 권유, 리서치 또는 특정 증권, 상품, 투자, 투자전략 등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에 대한 권고가 아니며 그러한 행위로 인식되어서도 안됩니다. 본 자료는 투자 전망 또는 예측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베어링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언급된 서비스, 증권, 투자 또는 상품은 잠재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관할권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상표

COPYRIGHT © 2024 BARINGS. 본 자료의 저작권은 베어링에 있습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정보는 개인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베어링의 동의 없이 변형,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BARINGS (또는 베어링)과 로고 디자인은 BARINGS의상표이며 미국 및 전 세계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BARINGS 에게 있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5-4619704호 (2025.06.27~2028.06.26)

BARINGS.COM

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2025년 3월 31일 기준